

국가예산 확보 '동분서주' 국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지역 소식통

임실군, 5급 이상 공직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임실군이 지난 6일 군청 농민 교육장에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46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리나 강사는 성별 고정관념,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의한 사례,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과 직장 내 성희롱과 처벌 등에 대해 알기 쉬운 사례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조직 내 관리자의 역할과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성료

남원시의회(의장 김영대)가 지난 4월 시작한 청소년 의회교실을 도통호 6학년생 25명을 마지막 체험 순념으로 맞으며 2024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마무리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관내 청소년들이 일일 시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시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 스스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율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해 민주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도록 도와주는 체험활동으로 2007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비회기 중에 총 15개 학교, 33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학생들은 △시의회 역할과 기능 소개 △의회 시설 견학 △의회 의회(찬반 토론 및 표결) △참여형 프로그램(2분 자유발언, OX 퀴즈) 등을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대 의장은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와 민주주의 의사결정과정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2026~2027년도 선제적 사업 발굴 위해 개최

남원시는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2026~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민선식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부서별 발굴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국·소별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9월에 열린 1차 발굴 보고회 이후 선제적 사업 발굴을 위해 조속히 개최되었다.

이 자리는 남원시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로,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역산업 체질개선과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 등 우리 시 성장발전을 견인할 신규사업 발굴을 목표로 총 33건(총사업비 1,694억원 규모) 보고되었다.

주요 사업은 △공공주택 개발 프로젝트(300억) △남원, 가야고분군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40억) △지리산 에코 캠프 조성사업(100억) △남원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100억) △남원시 배수개선사업(83억)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디지털 전시관 구축(60



남원시 상고지구 우수저류지 설치 사업(254억)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남원시는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굴 사업의 전문가 자문 추진 등을 통해 논리 보강을 통한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정치권과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부처 예산 반영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민선식 부시장은 "정부의 세운 결속으로 국가예산 사업이 축소되는 등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선8기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는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 철저한 논리개발과 함께 정부정책에 부합하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을 내실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수상

순창군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의료나눔 활동으로 뜻깊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6일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개최된 '2024년 노인의료나눔재단 사업성과 보고대회 및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순창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은 만성질환인 퇴행성관절염으로 치료나 수술을 권유

받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국비 지원과 사회적 후원을 통해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번 시상식에서 순창군은 무릎 인공관절, 백내장, 임플란트, 의치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으로 취약계층 노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소방서,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준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본격적인 난방 시즌을 앞두고 겨울철 난방용품 중 하나인 화목보일러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으로는 △지정된 화목연료 사용 △기연물은 보일러와 2m이상 거리두기 △보일러 주변 소화기 비치 △보일러 사용 중 연료 투입구 닫기 △투입구는 3일, 연통은 3개월에 1회 청소 등이다.

나형철 예방안전팀장은 "화목보일러는 매우 효율적인 난방기기지만, 관리가 소홀할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를 예방하고 따뜻하고 안



전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국회 총력대응에 나섰다.

남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경식 시장은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국회 협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난 4일부터 3일간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최경식 시장은 안도걸 의원, 신영대 의원 등 예결위원과 전재수 문체위원장을 차례로 면담하고 남원시 주요 국비 확보 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장비비 지원사업, 생안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아 아간 휴일 진료 시범운영, 도자전시관 건립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



한 필수적인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안호영 의원, 이춘석 의원, 김운덕 의원 등 도내 지역구 의원과 김대식 의원, 송석준 의원 등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 강경숙 의원, 오세희 의원 등 지역 연고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13일 개최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 대토론회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지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최영일 순창군수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실현을 이룰 순창군 중점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며 광복 행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6일 최영일 군수가 직접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정동영 의원(과방위)과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이원택 의원(농해수위), 성일종 의원(국방위원장), 윤준병 의원(농해수위/예결위), 조배숙 의원(법사위/예결위) 등 여·야 국회의원 8명을 차례로 만나 국회 예산심의 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군수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요청



했다.

총사업비 96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현재 부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로, 올해 12월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본격적인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서, 최 군수는 면담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 군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금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75억 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체계적인 생활오수 처리가 가능해져 하천 수질이 개선되고 지역 주민들의 정수 여건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발효식품 특화 도시로서 순창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미생물 기반 전통장류제품 표준화 지원사업(120억 원)도 중점 건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순창군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회,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심민 임실군수

심 민 임실군수가 지난 5일 군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환경부 장관과 권영진, 안호영, 조배숙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먼저 이날 심 군수는 김완섭 환경부장관을 만나 오랜 숙원사업인 △육정호 순환도로 개설 협조(620억원)와 △육정호 붕어섬 생태탐방 교량 건설(18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전국 최초 다목적댐인 섬진강댐 건설(1965년) 당시 개설되지 않은 댐 주변도로 중 남측구간 6.4km가 아직도 미개설되어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기증은 물론 지역 개발의 큰 걸림돌이 되어 지역 낙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군은 지금이라도 국가 책임하에 대안을 강구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심 민 군수는 김완섭 환경부장관에게 댐 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국토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육정호 순환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육정호 출렁다리~붕어섬 생태공원~육정호 수변데크를 잇는 10km의 생태탐방벨트를 조성함과 동시에 붕어섬 생태공원 내 구급차 등이 진입 가능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육정호 붕어섬 생태탐방 교량(180억원)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가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후 국회를 방문, 국토위원회 간사

인 권영진 의원과 이춘석 의원을 만나 △육정호 순환도로 개설을 위한 지방도 717호선 국지도 승격 △국도 49호선 선형개량사업(405억원)의 제6차 국·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안호영 의원을 만나 △육정호 붕어섬 생태탐방 교량 건설(180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34억원) 국비 확보에 적극 지원을 요청하고, 5선 의원인 조배숙 의원을 만나 임실군의 여러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심 민 군수는 "정부의 건축재정 기조와 세수 결손 등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랜 숙원사업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환경부 장관 및 국회의원을 만났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무소속 3선 군수를 만들어 주신 군민과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민다.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